

**하느님의 자비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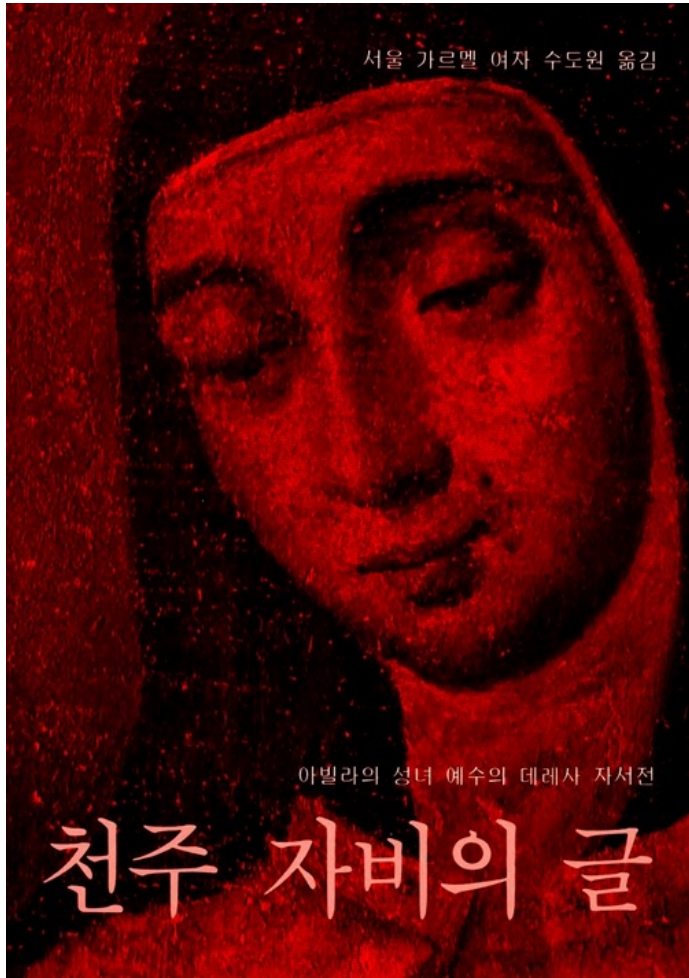
**자비의 인간이 되어**



#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두 손 모아 합장 축원 드리옵니다.

-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로마 9,16)
- 그것은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비를 저버리지 않을 때에 한한 일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도 잘려 나갈 것입니다.(로마 11,22)
-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로마 12,1)
-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2코린 4,1)
-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했으나 지금은 하느님의 자비로 다 나왔습니다.(필리 2,27)



**261번**

**188번 > 261번**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 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탈출 22,26)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도 파멸시키지도 않으실 것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도 잊지 않으실 것이다.”(신명 4,31)

“하느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오면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오.”(2역대 30,9)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시편 51,3)

**라하밌 (~ymix]r;)**

**레헬 (~x,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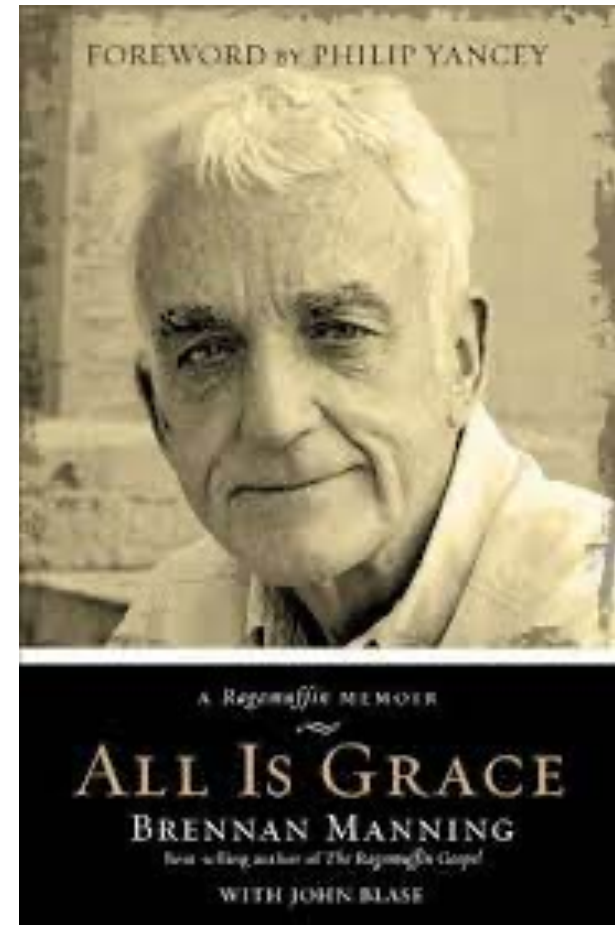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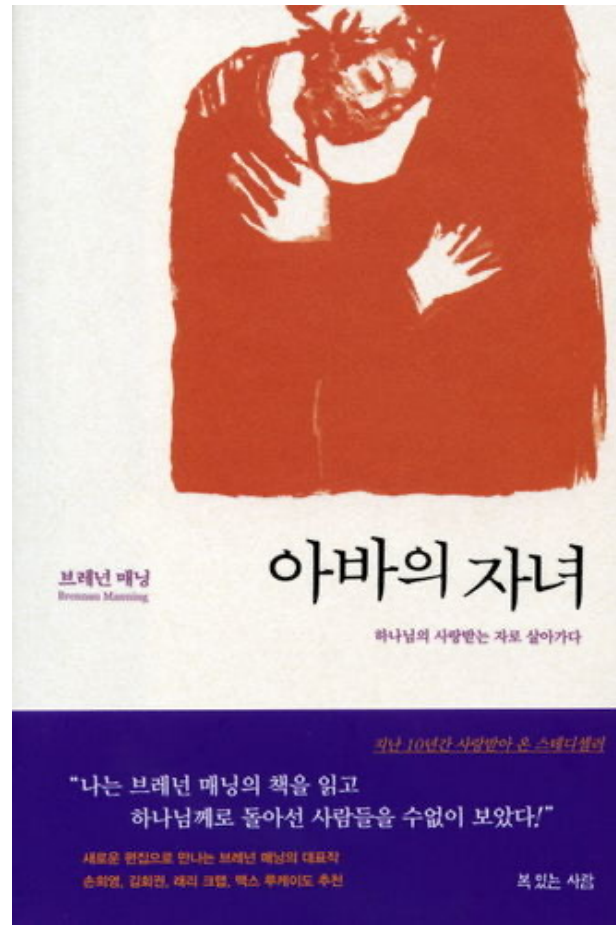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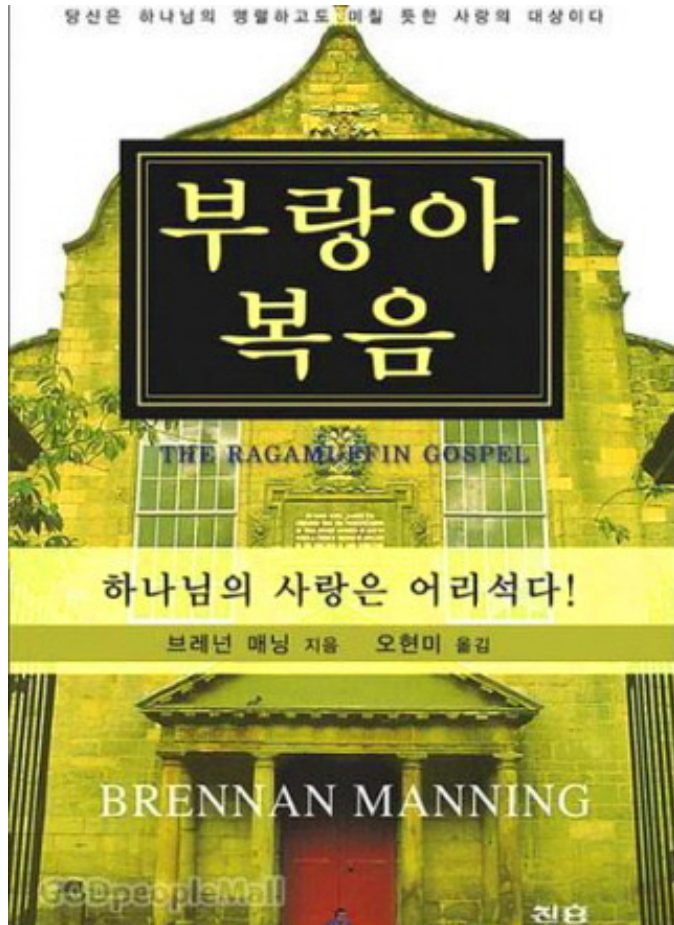
“오직 자비만을 닦으라... 마치 어머니가  
그의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 같  
이 살아 있는 모든 것 위에 한량없는 자  
비의 마음을 내어라.”(小部經典, 經集 1,  
8. 慈經)



#059-4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유대인 격언-





“47년의 내 험난한 여정에서 배운 것 하나를 나누고 싶다. 당신이 하느님을 선(善)이라 부르면, 그분은 당신을 선하게 대해줄 것이다. 당신이 그분을 사랑이라 부르면, 그분은 당신을 사랑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분을 자비라 부르면,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제대로 알았다고 칭찬해주실 것이다.”(Brennan Manning)

**스플란크나(spla,gcna)**

**스플란크논(spla,gcnon)**

**스플랑크니조마이**

**(splagcni,zomai)**

-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splagcni,zomai).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마태 9,36)
- 주님께서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splagcni,zomai)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루카 7,13)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마태 11,5)

**'거룩'이란 렌즈**

**'자비'란 렌즈**

가난한 자들! 지체 장애인, 버림받은 자들, 혜택 받지 못한 자  
들은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돌보기 전까지 사람들의 주목을 끌  
지 못했다. ... 오래 전 히포크라테스가 생명을 돌보겠다고 했  
지만, 그가 곤경에 빠진 창녀나 눈먼 거지, 외국인 노예, 돈 없  
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병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은 물론이요 당신의 제자들도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명하셨습니다. (Frank Davey)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쓰레기더미에 버려진 갓난아기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비 행위

기원전 1세기 로마군에 복무 중이던

힐라리온이란 사람이 아내 알리스에게 쓴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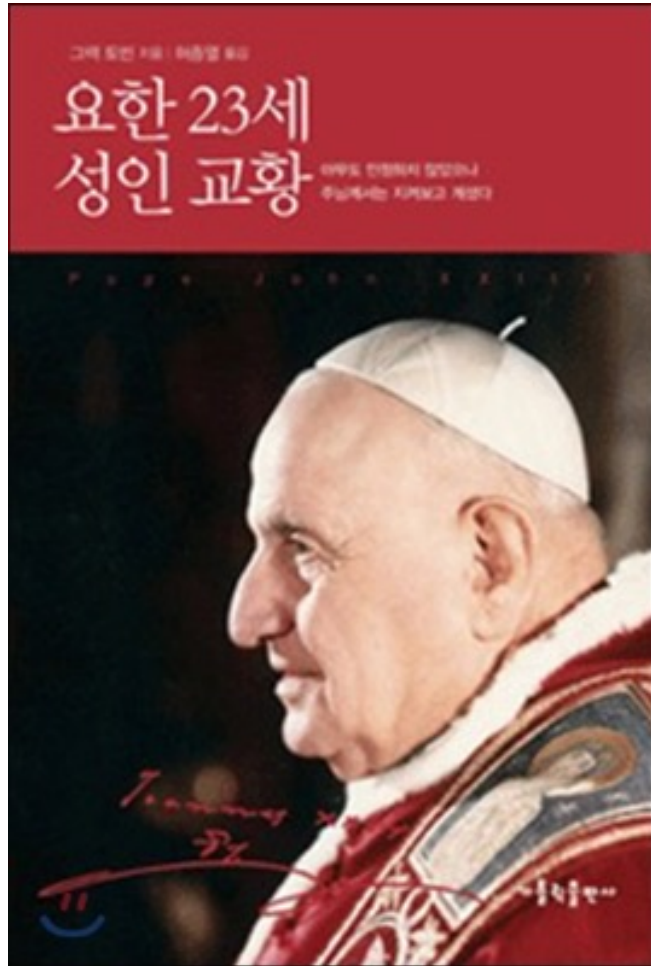
지

313년 그리스도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음

361년 그 자유를 다시금 박탈하려 함

380년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됨

**“불경한 갈릴래아 사람들(=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안에서  
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  
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  
백성은 동족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 참  
으로 부끄러운 일이다.”(Flavius Claudius Iulianus)**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엄격함이 아닌 자비의 치료제를 사용  
하고자 합니다. ... 가톨릭 교회는 공  
의회를 통하여 ... 다정하고 자비로운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

“나의 아들이요. 하느님이 그대에게  
사람들의 죄, 심지어 교구장인 나의  
죄까지 사해주도록 놀라운 선물을  
주신 점을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그  
로서 그대의 생활에서 가능한 한 죄  
를 피하고 섬김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공의회는 신앙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옛 이야기가 우리 공의회를 정신을 이끌어 준 모범이자 규범이었습니다. ... 공의회는 풍요로운 가르침은 인간에게 봉사하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 온갖 나약함을 지닌 인간, 갖가지 요구를 지닌 인간에게 봉사하려는 것입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최종회의 연설)



- <자비로우신 하느님> 회칙 선포
- 부활 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선포
- '하느님 자비 신심'의 전달자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님을 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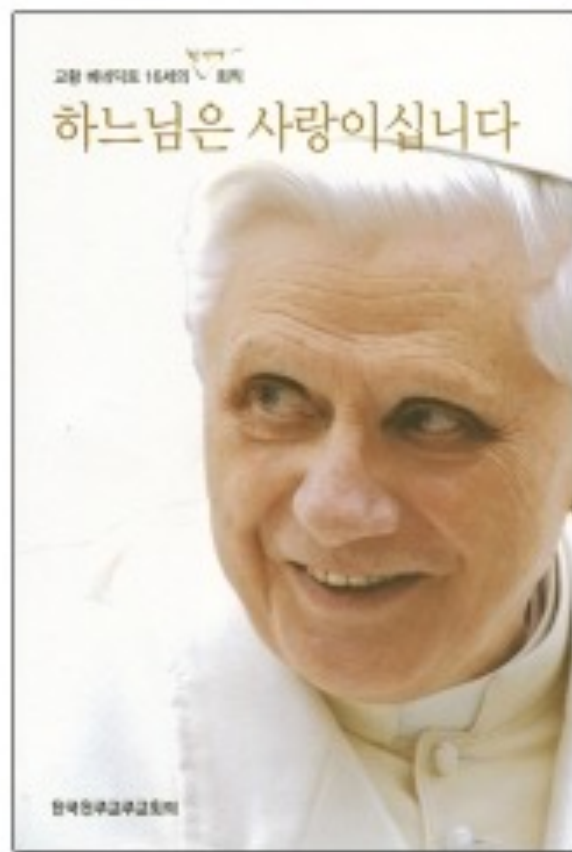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

# 일기

성녀 M.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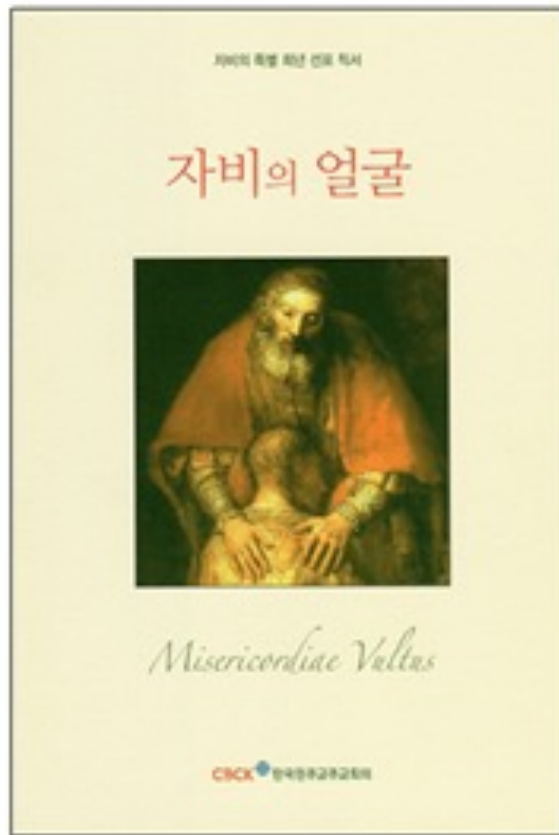


# 자비의 희년

JUBILEE OF MERCY

20151208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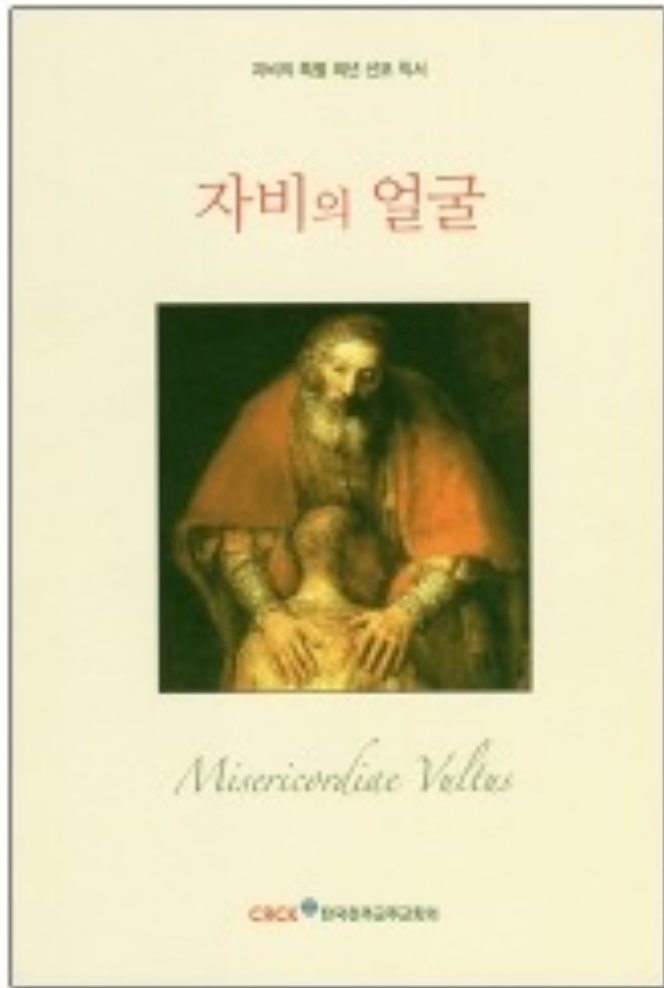
마침 20161120



“교회는 복음의 뛰는 심장인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자비의 얼굴」 12)

이제부터는 해마다 자비가 넘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하느님의 선하심과 온유하심을  
가져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  
다.(「자비의 얼굴」 5항)

- 1.복음의 뛰는 심장인 하느님 자비에 대해서
- 2.우리 또한 자비의 인간이 되기 위하여
- 3.하느님의 자비를 수령하는 자리, 고백성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  
의 얼굴이십니다.”

(「자비의 얼굴」 1항)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요한 14,7.9)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요한 1,18)

**엑세게오마이 (evxhge,omai): 주석하다**

**exege-sis: 주석**



<돌아온 탕자의 비유>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첫 번째 주석은 하느님을 아바로 부르게 한 것

“너희는 하느님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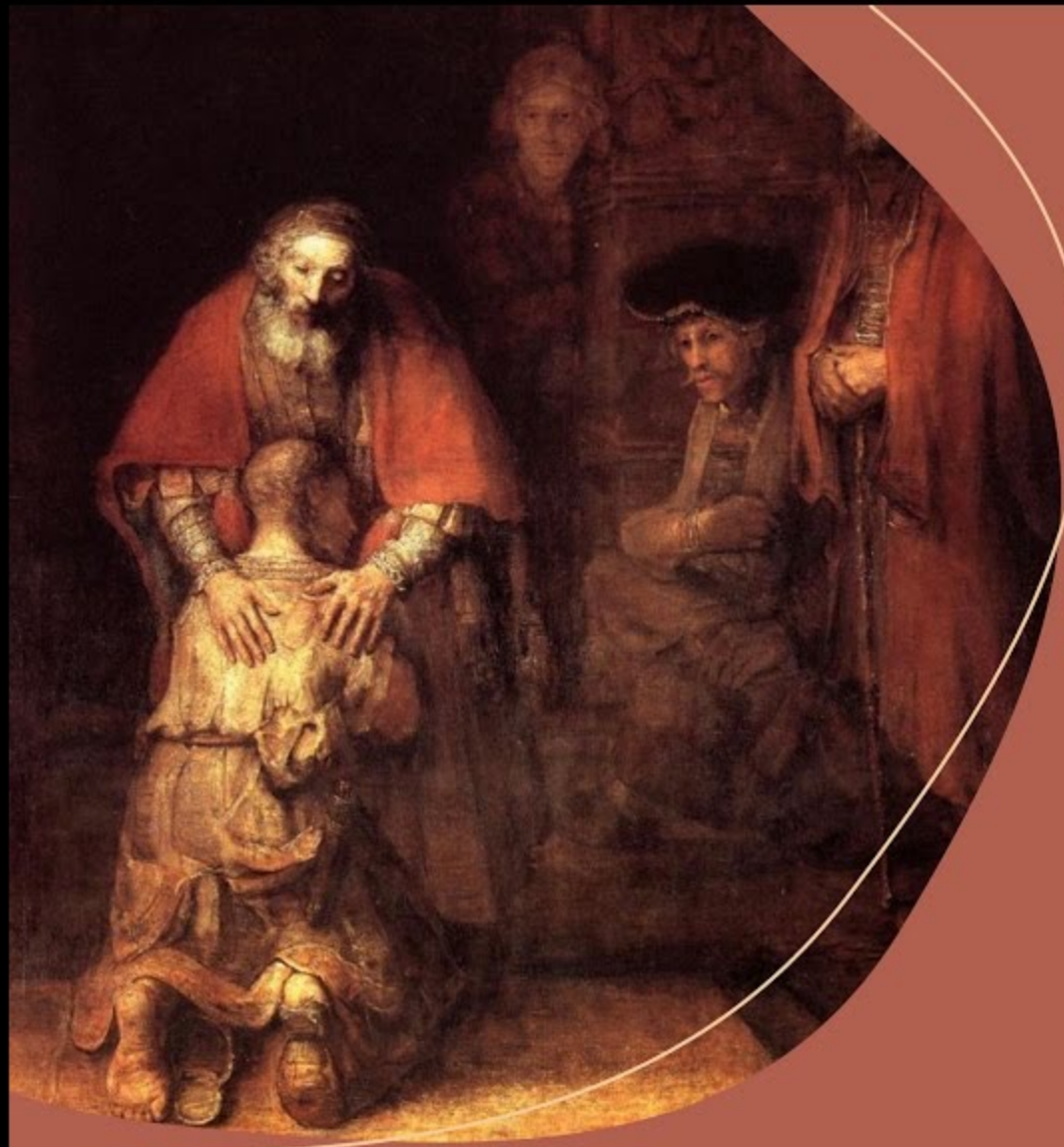
‘아빠!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루카 11,2)

아바

“하느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은 과거 어떤 사람에게도 계시 되지 않은 것이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느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문의했을 때, 그가 들었던 대답은 ‘나는 있는 나다.’였다(탈출 3,13). 하느님을 아빠라 부르게 된 것은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이뤄졌다.”  
(테루틀리아누스 「기도에 대해서」 3)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  
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1요한 3,1)

참새 두 마리가 한 뿔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  
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  
어 두셨다.(마태 10,29-30)



#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작은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루카 15,20)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루카 15,20)

카타필레오(katafile,w): "열렬하게 입 맞추다"



무릇 죄인들은 알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서는 이미 동구 밖에 나와서 내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는 탕자 밖에는 자식이 더 이상은 없는 듯이 오직 그 자식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느님은 수많은 자녀가 있어도 나 하나 밖에는 더 자식이 없는 듯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소화 데레사)

“제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패악한 죄를 저 혼자 다 지었다고 해도, 하느님을 만나면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분께 달려가 그 품에 안길 것입니다. 제가 지었다는 죄를 다 합해도,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라는 용광로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빗방울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소화 데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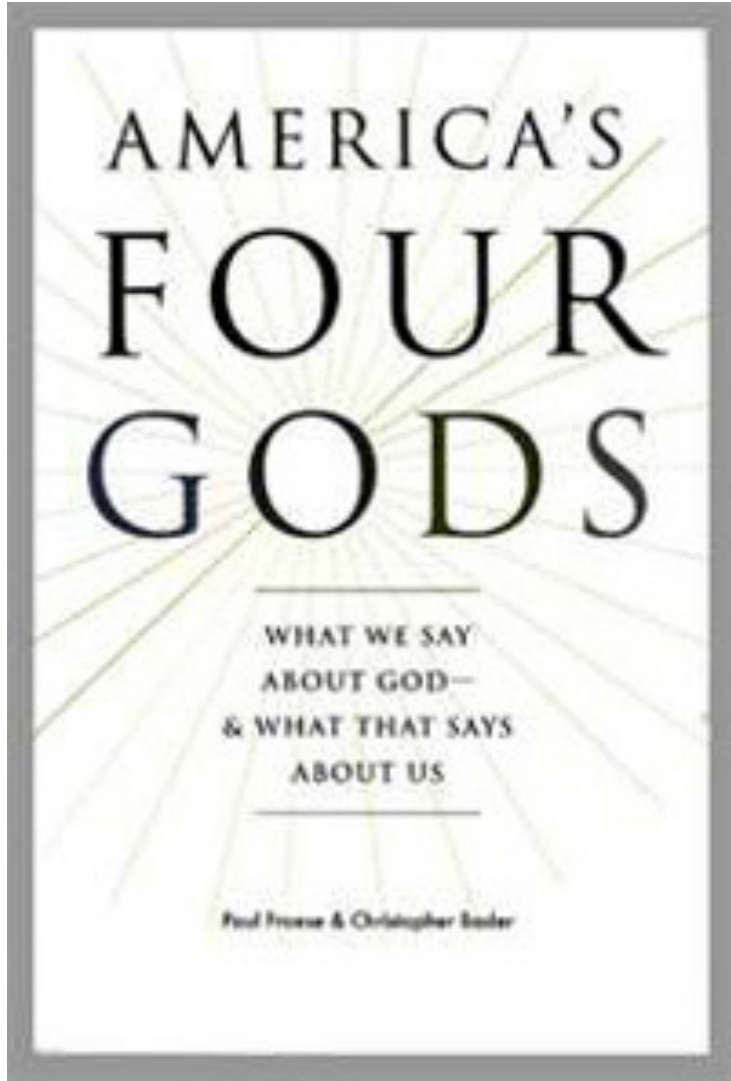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루카 15,24)

회개는 하느님을 다시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분의 집과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분에게 모든 신뢰를 다시금 드리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다.(Joachim Jeremias)

**아버지 집에 돌아온 작은아들은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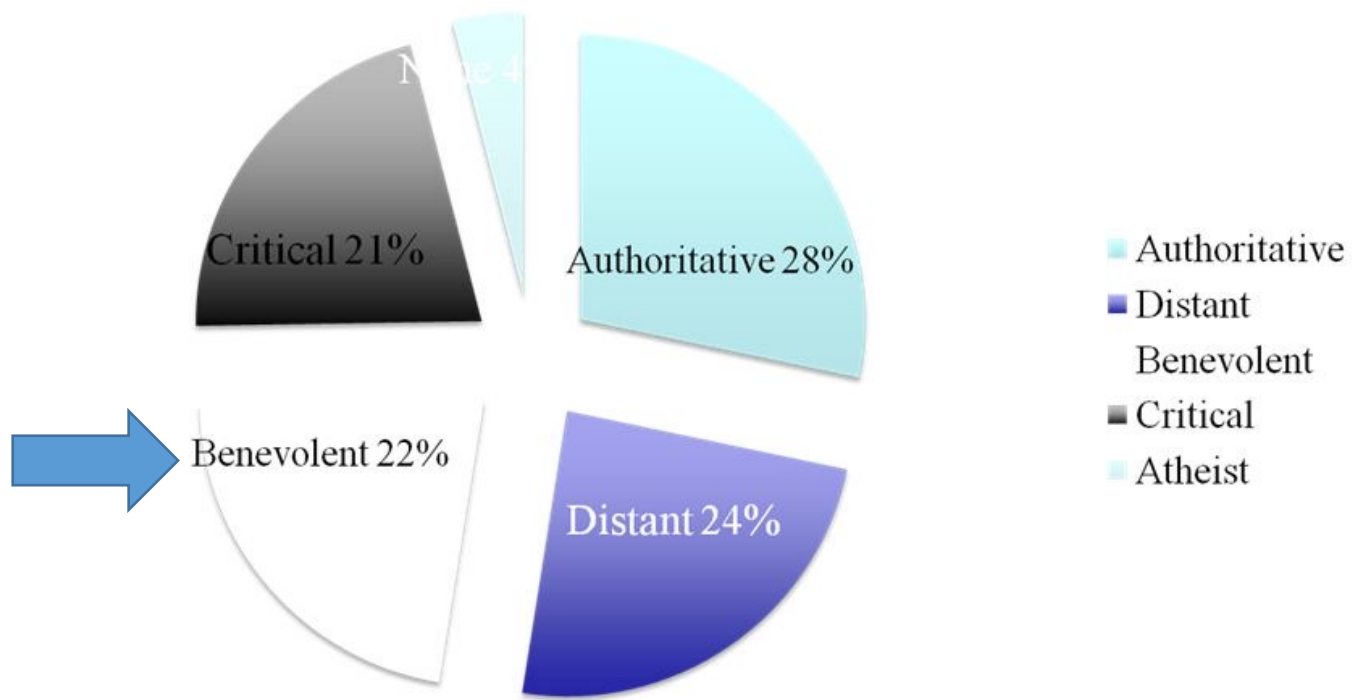
**“복음 안의 복음”**

**“복음의 심장”**



# America's Four Gods

Froese, Bader 2010



**이스라엘 9대 판관**

**입다**



**자신의 죄를 바라다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열 번 바라다보아야 한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반드시 하느님의 자비를 발견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곧 창조주시요 아버지께서만 보여 주실 수 있는 사랑, 오래 참고 친절한 사랑을 발견하는 데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이 아버지를 ‘다시 알아보는’ 결실이기 마련입니다.”(「자비로우신 하느님」 13항)



“바질(=추기경의 이름),  
과자가 참 맛있지!  
하나 더 먹으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하지만 '용서 받은 죄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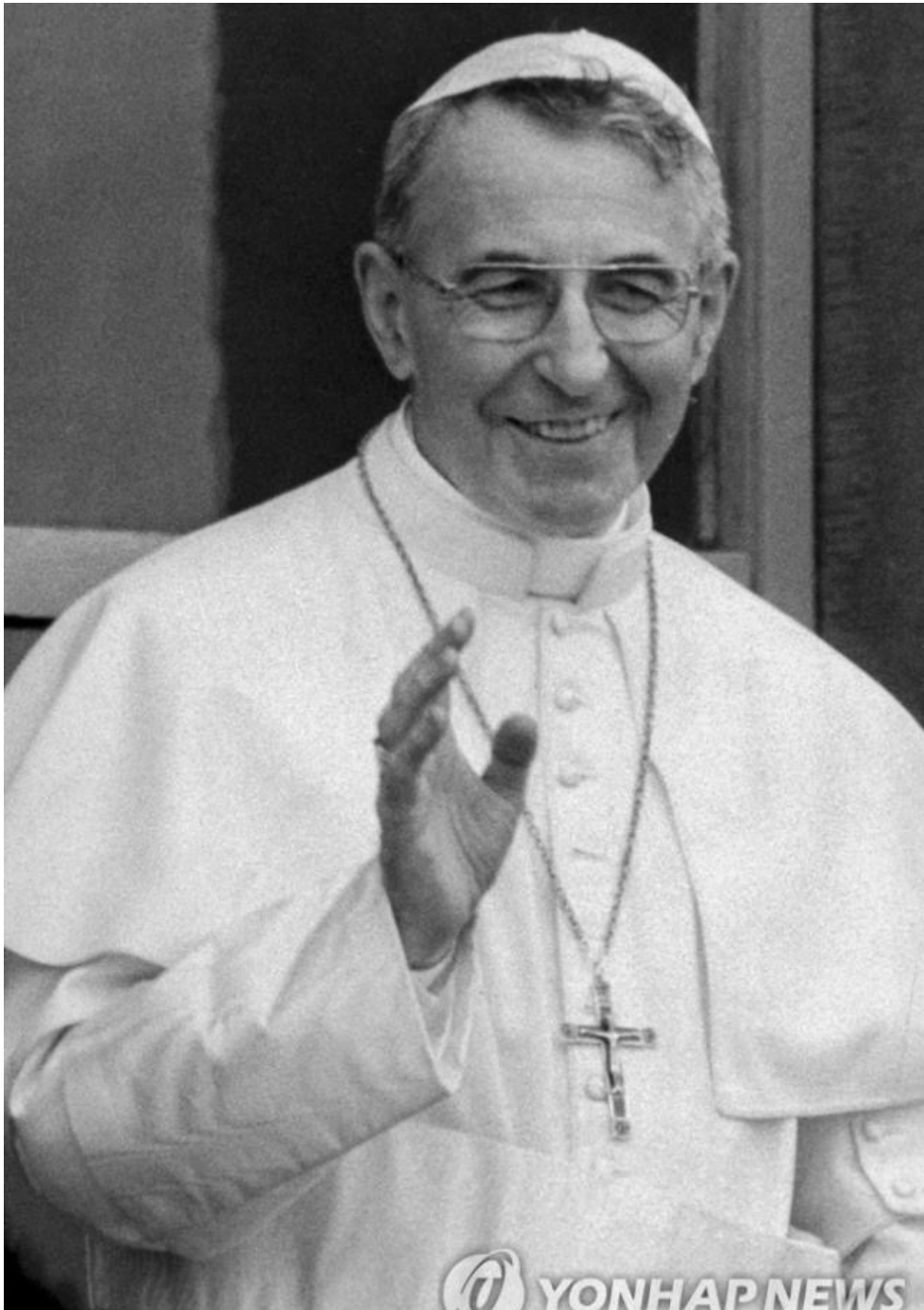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예레 31,34)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시편 103,2).

“나는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히브 8,12)

# 운명을 갈라놓는 두 개의 시선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는  
바라다보지 않고,  
자신의 죄만을 바라다보면  
어떻게 되는가?



“유다가 은전 서른 냥에 스승 예수를 배반한 것은 끔찍한 죄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죄는, 그가 ‘내 죄가 너무 크다.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는 언제나 그 죄를 덮어 줍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여 어떤 죄도 감싸 줍니다.”(요한 바오로 1세 교황)

“성령님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 12,31-32)



“하느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뉘우침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를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러한 완고함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 갈 수 있다.”(가톨릭 교리서 1864항)

**죄의 결과는 단절?**



프랑수아  
모리아크

“죄가 하느님과의 결합을 방해한다고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의 착각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분의 시선은 우리한테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 악행에 다소 슬퍼하실 뿐이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끊는 주제는 오직 우리다. 우리가 하느님을 저버리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신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  
을 부인한 순간에] 닭이 울었  
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  
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루  
카 22,60)

엠블레포 (emblem)



“바라다봄의 절정은 우리를 바라다보고 있던 그분을 우리가 비로소 보는 것이다”(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나는 빛에서 등을 돌리고 그 빛이 쏟아지는 물건들에만 한눈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 그 빛을 바라다 보았을 때, 나는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자비로운 그분을 볼 수 있었다.”(아우구스티누스)



**I see you**

그대의 눈을 통해 나를 보아요

그대의 눈을 통해 나를 보아요

높이 날아 그대의 사랑이 천국

으로 향하는 길을 비추니

전 제 삶을 바치겠어요

그대의 사랑으로 살아요

그대의 삶으로 살아요

그대를 보아요 그대를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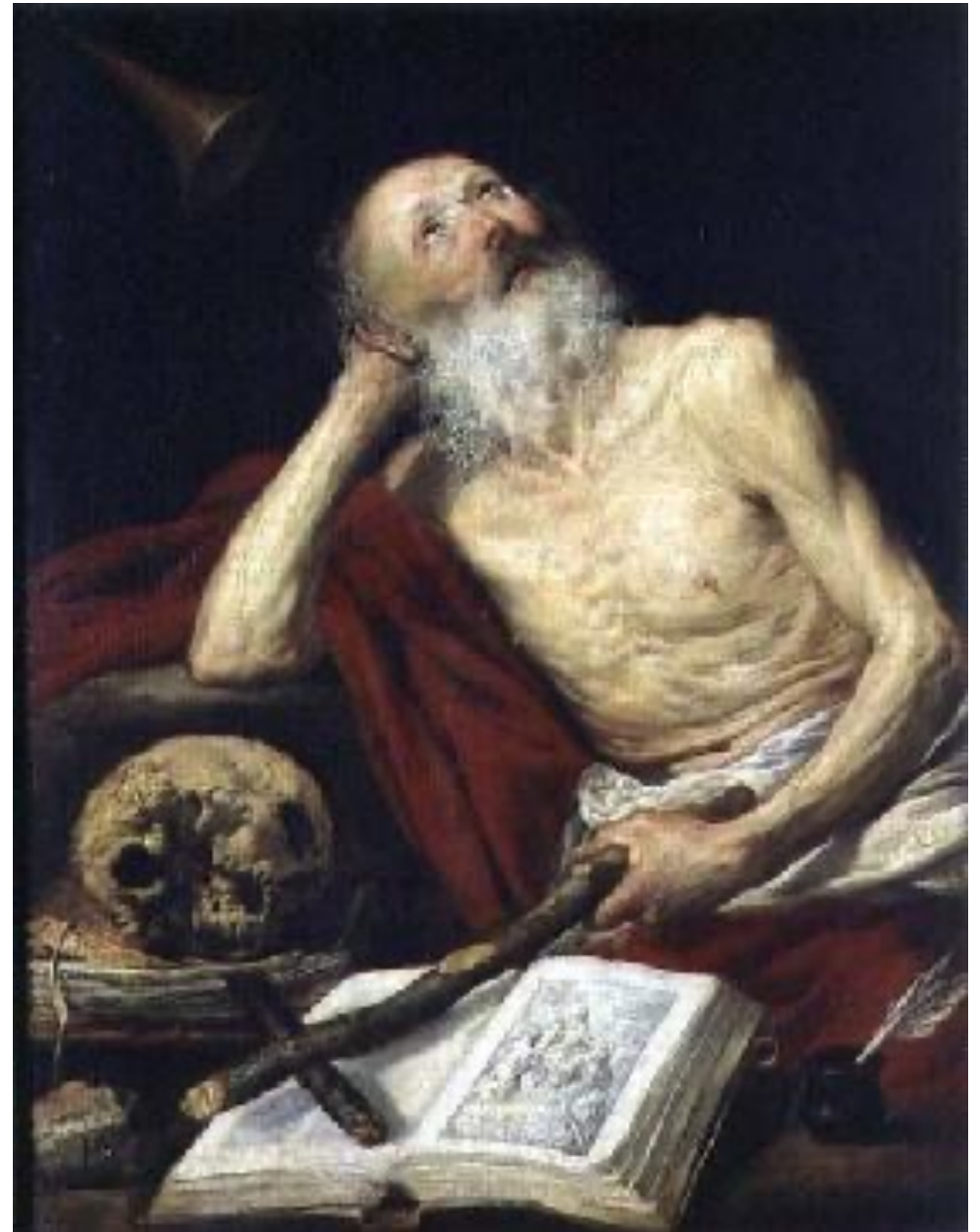
(영화 아바타의 주제곡)





**“우리 모두는 누구나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  
말을 맺을 수 있다.”**

“내 얼굴은 단식으로 창백했다.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내 마음은 욕망으로 불붙고 있었다. 육신이 거의 죽은 듯 한 지경이 되었는데도 정욕의 불은 내 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예로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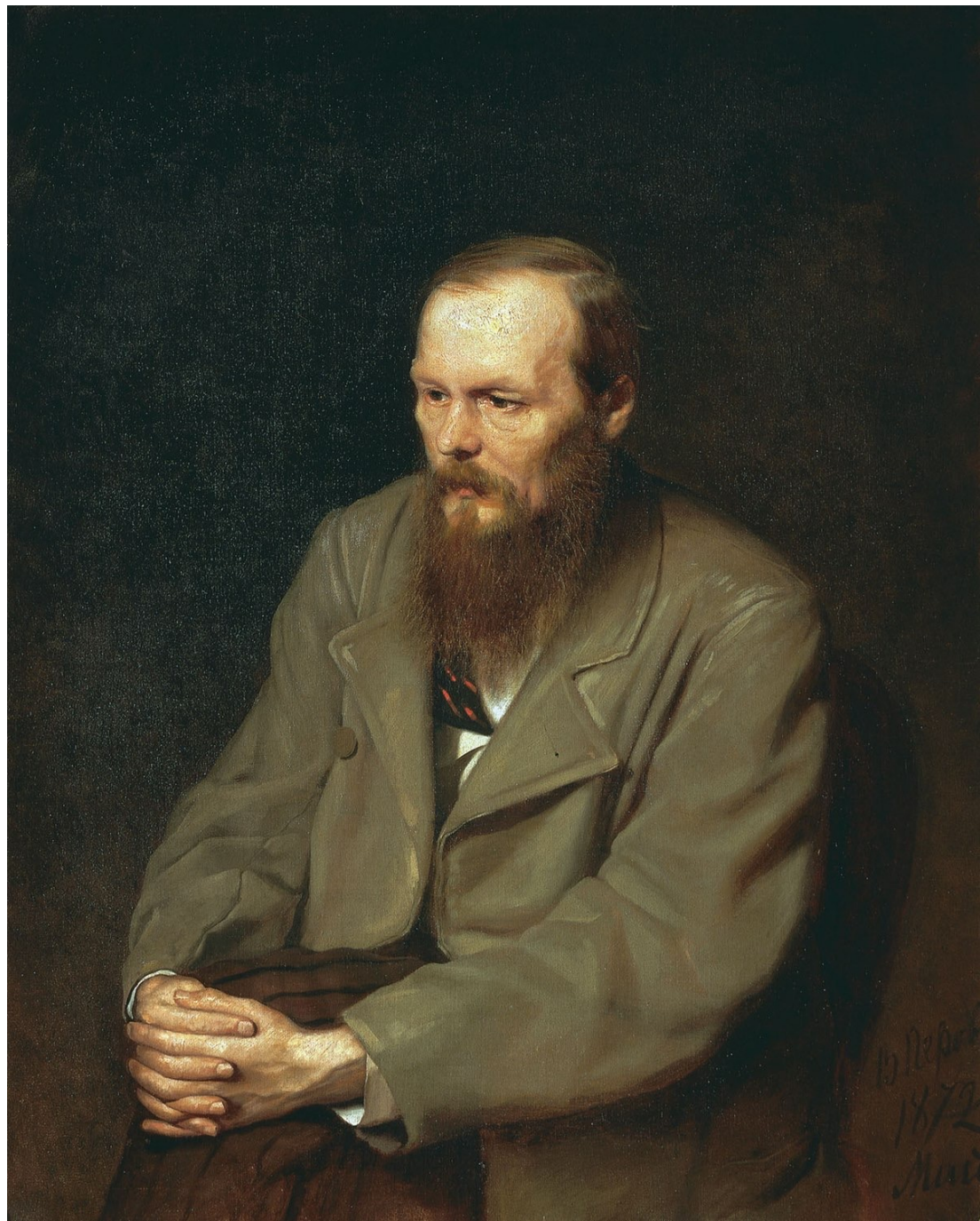
"그대가 정말로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선물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좋다.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나에게 다오. 내가 필요로 하는 선물은 바로 그것이다. 그대의 죄와 욕망만큼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선물은 없다."

**은혜 (gratis)**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일 수가 없습니다.”(로마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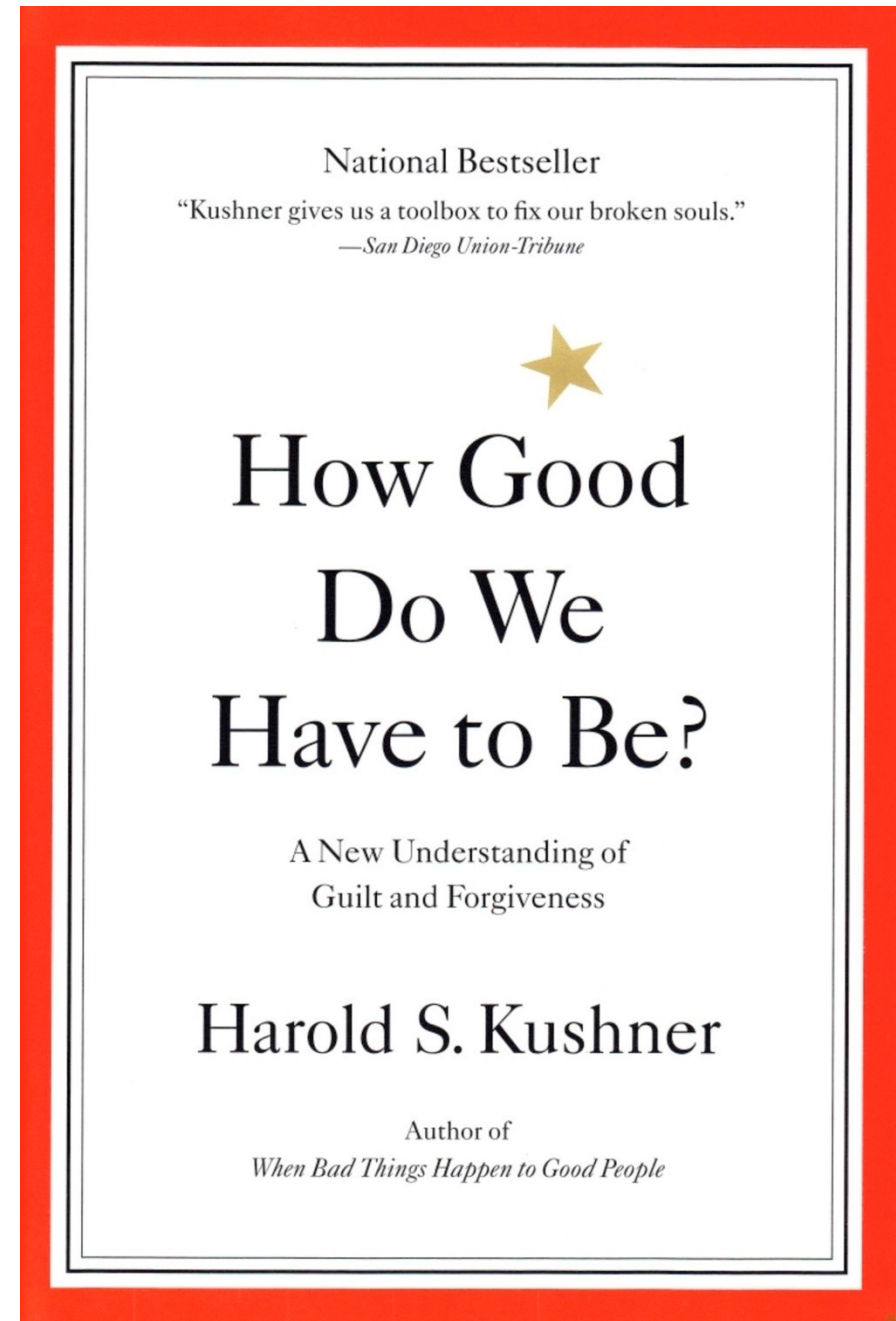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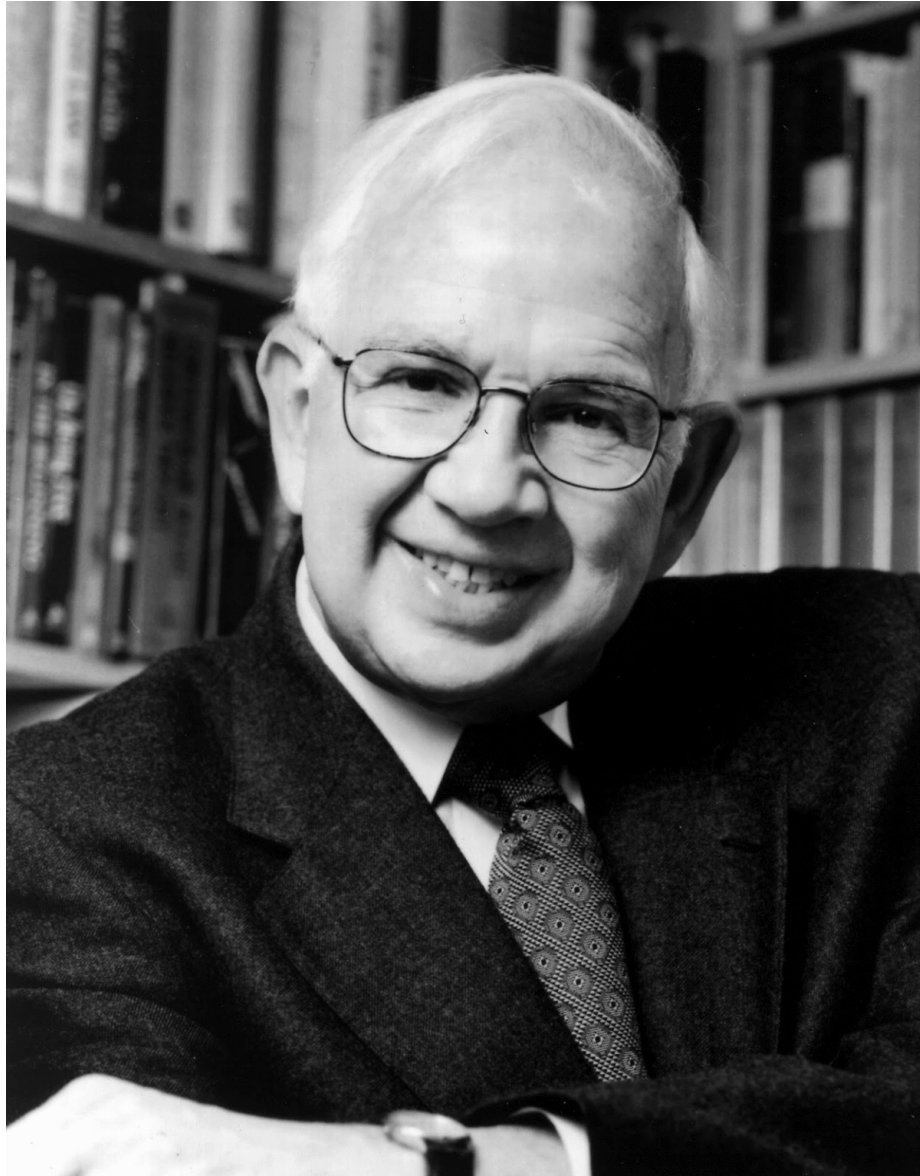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리 오라! 술주정뱅이여, 약한 자들이요, 부끄러움의 자녀들이여, 이리 오라!’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 의롭고 훌륭한 자들이 그분께 ‘주님!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을 받아주십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그들의 질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의로운 자들아, 내가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그들 중 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두 팔을 벌리실 때 우리는 그분 발 앞에 엎드려 흐느껴 울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은총의 복음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도스토에프스키)





“내 자비의 은총은 다만 하나,  
의탁이라는 그릇으로만 퍼낼  
수 있다. 영혼들이 내게 의탁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일기 1578)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제가 에이즈에 걸려서 좋은 것은 내가 항상 믿고 있었던 진리가 사실임을 확인하게 된 점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진리는 그분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가에 상관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병실에서 하느님이 계심을 느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울 때조차도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못된 놈이라 미워하면서 경멸할 때 하느님도 나를 경멸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느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내가 저지른 일을 알고서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왔던 곳, 곧 천국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배워야 할 한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아빠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것을 배우고 실행했다면 그는 인생의 모든 교과 과정을 훌륭하게 마친 것이라 할 수 있다."(퀴블러-로스)

“우리 삶에 있어서 최대의 전환점은, 우리 자신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당신 자녀인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은 우리로부터 ‘아빠’라 불리기를 원하신다는 점  
에서 다 드러나 있다.”(드 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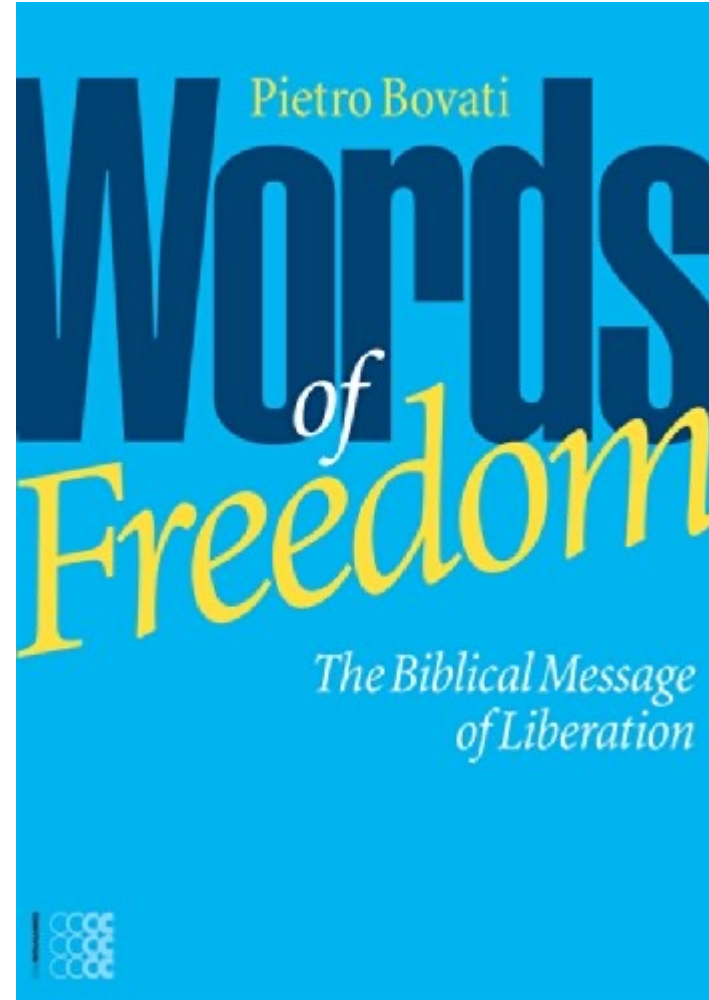
“제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패악한 죄를 저 혼자 다 지었다고 해도, 아빠 하느님을 만나면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분께 달려가 그 품에 안길 것입니다. 제가 지었다는 죄를 다 합해도, 아빠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라는 용광로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빗방울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소화 데레사)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 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피에트로 보바티(Pietro Bovati) s.j.**

**리브(byr)와 미슈파트(tpvm)**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

끝까지 따지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

(시편 103)